

제2회 제주평화포럼 기조연설

존경하는 프리마코프 전 러시아 총리,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와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회 제주평화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해 온 관계자와 제주도민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외에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주도는 여러번 와도 지겹지 않고 오면 올수록 포근한 도시입니다. 맘껏 즐기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제주는 이제 국제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대규모 국제회의와 문화축제를 통해 매력적인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입니다.

며칠 전에는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민간차원에서 주최한 '민족평화축전'이 열렸습니다. 남북한국방장관회담과 제3차 남북한장관급회담이 이곳에서 개최되

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평화에 대한 제주도민의 소망은 매우 간절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아물지 않은 냉전시대의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55년 전 이곳 제주에서는 격렬한 좌우 대립이 발생하여 수많은 주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4·3사건'은 우리에게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대립과 갈등의 잔재를 해소하고 평화와 화해의 시대를 열어 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입니다. 저는 이러한 염원이 제주 평화포럼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포럼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에 평화공동체를 건설해 가는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핵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과 내일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북핵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인가, 6자 회담은 성공할 것인가, 남북한 관계는 개선될 것인가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핵 문제는 반드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태국 방콕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지도자들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했습니다. 북한에 의해 제기된 안보 우려를 포함한 관련국들의 모든 관심사항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또한 완전하며 항구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6자 회담의 당사자인 미국·일본·중국·러시아 정상들과 만나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6자 회담의 조기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 폐기에 진전을 보인다면, 다자틀 내에서 안전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제의에 대해 북한도 지난 25일 이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6자 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생각하며, 북핵 문제가 결국 다자간 대화를 통해 포괄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의 안전보장과 경제재건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남북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햇볕정책을 계승한 평화변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한간 화해협력과 공동변영, 그리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여러 분야에서 모두 열여덟 차례의 남북회담이 지속적으로 열렸으며, 이제는 주요 회담이 정례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육로관광을 비롯한 경제협력사업도 일정대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도 명절 때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경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무장 지대 일부가 개방되고, 남북한 군사당국자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진 것은 매우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 해결 전망과 남북한 관계 개선은 동북아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이제 동북아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선 공동의

이익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분야부터 구체적으로 협력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물류·에너지·IT 등 경제안보와 관련이 큰 분야의 사회간접자본 네트워크 건설을 추진하여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해 가야 합니다.

둘째, 역내 교역자유화를 통해 궁극적인 경제통합을 지향해 나가야 합니다. 역내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북한을 포함한 역내 낙후지역 개발을 지원하여 모든 국가들이 경제통합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역내외 국가들이 협력해서 항만·철도·도로·발전소 등의 건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동북아 협력의 추진에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문화와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당장은 개별 국가간 협력을 더욱 촉진하고, 이를 점차 역내 모든 국가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달 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갖고, 3국간 협력증진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 선언에서 한·중·일 3국은 전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과 투자, 에너지, IT, 안보, 초국가 문제 등 모두 14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러한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3자 위원회'를 설립하고, 매년 개최될 정상회담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지난주 방콕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FTA 체결을 위한 교섭을 올해 안에 시작하고 2005년까지 실질적인 교섭을 마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한·중·일 3국간 FTA 체결 방안을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와의 FTA 추진을 계기로 한·ASEAN간 FTA 체결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세계를 향해 열린 경제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 지식기반 경제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적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수준의 IT산업 기반과 물류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천·부산·광양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외국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물류와 금융, 비즈니스와 R&D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21세기는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국가가 성공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동서냉전의 마지막 섬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가 세계의 화해와 협력을 이끄는 진원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앞장서서 열어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 꿈과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경륜을 담은 좋은 방안을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한 제주도와 제주발전연구원, 연세대학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